



주류업계
바뀐 음주문화에
돌파구 찾는다
L1

metro®

Life

티몬 재개장
5개월째 멈춰
오아시스 발동동
L2



새벽기차 타고 현장 오가는 ‘청년 정책가’

“좋은 정책은 萬을 살린다… 정치로 ‘공정한 사다리’ 복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단체 ‘Team.Fe’

송서울 대표

“잘 만든 정책 하나가 천(千)을 먹여 살리고, 만(萬)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송서울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는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당에서 속해 청년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해내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부연했다.

**청년정책 전문가로 보수진영서 활약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경험 쌓아
청년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로
창업·노동·교통 등 청년정책 발굴 앞장**

◆새벽 기차 타고 목포서 올라오는 도전적 청년

송서울 대표의 고향은 전남 목포다. 그렇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친(親)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다.

송 대표는 특이하게도 목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보수 진영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문가’다. 정치적 성향을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을 수백 번도 넘게 들어왔다는 송 대표는 “경험과 관찰의 결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답을 대신했다.

목포 시내에 은은하게 퍼지는 새벽 공기를 즐긴다는 송 대표는, KTX 목포발(發) 새벽기차 예매 전쟁을 뚫고 서울을 오가는 ‘체력왕’이기도 하다.

◆당정에서 청년정책 설계 참여하며 꿈 키워

송서울 대표의 본격적 청년 정책 활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국민의힘 부대변인, 국민의힘 쏠소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당정에서 두루 경험을 쌓고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송 대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에 큰 의미를 뒀다. 당시 청년정책조



송서울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과 더불어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였다.

송 대표는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많은 회의 끝에 좋은 정책을 제안해 올려도 반영되기까지 행정 프로세스 상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행정 여건상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출범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의 매력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정책을 논의하는 속도나 당의 공식 발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 정부 위원회의 회의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으로도 활동하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통동

보드’ 관련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을 다뤘는데, 당시에 정치권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전동 킥보드 금지법이 발의되는 것을 보며 “괜히 반가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년이 들러리 아닌 ‘실무 파트너’ 돼야

송서울 대표는 청년정책연구단체 Team.Fe의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Fe’는 주기를 표에서 ‘철’을 의미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철’같은 사람이 되어, ‘철’같은 정책을 발굴하자는 뜻이다.

‘Team.Fe’엔 청년정책, 창업, 노동, 교통 등에 관심이 높고, 정부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송 대표는 “주로 연구한 것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이라며 “최근에는 전라남도 청년정책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청년정책은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란 집단을 단순한 연령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무적 주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국민의힘 쏠소리위원회 출범식 때도 장 대표께 ‘국민의힘은 20·30을 위한 정책이라고 통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연령대와 상황을 좀 더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공감해주셨다”며 “또한, 청년세대의 대표적인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 법정 청년연장 문제에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인 실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에서 청년이 들러리가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당당한 ‘실무 파트너’로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청년 집단, ‘실무적 주체’로 정의해야
필요할때만 찾는 청년 ‘토사구팽’ 아닌
정책결정 실질적 개입 통로 열어줘야
다수의 목소리 대변하는 역할 힘쓸 것**

◆필요할 때만 찾는 청년 ‘토사구팽’ 끝내야

송서울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청년들은 자산·고용 등에서 양극화를 겪으며 불안을 겪고 있고, 이는 청년 세대의 역량을 깎아 먹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일부 기대 대표된 목소리나 즉흥적인 여론에 기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의 정치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세대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필요할 때만 청년을 호출하고 내버려두는 ‘토사구팽’을 끝내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의 행보를 두고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내 목소리를 보태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야기하는 역할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한 권한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료들과 함께 더 믿을 만한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그리고 호남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 오래된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고, 장차 우파 진영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영세(두번째 줄 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에서 윤희숙(두번째 줄 왼쪽 두 번째) 전 여의도연구원장, 송서울 Team.Fe 대표(맨 앞줄 왼쪽 두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  한줄뉴스



▲야구대표팀 포수 최재훈, 캠프서 손가락 골절… 4주 진단
▲‘전 키움’ 푸이그, 미국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
/사진 뉴시스

▲WBC 3연속 1차전 패배…‘8강 목표’ 류지현호, 체코와 첫판 필승 다짐
▲알나스르 호날두, 운영 불만에 사우디 떠나나 “여름 이적 가능성”

▲대한항공, 한전 3-1로 꺾고 ‘선두 탈환’…GS, 정관장 3-0 완파
▲NBA 샌안토니오, 댈러스 138-125 격파…캐슬 40점 트리플더블 달성